

영농철 인력 운송차량 ‘달리는 폭탄’

과속·곡예운전·인원초과 탑승 등 안전의식 결여

목포·영암 등 잇단 사고...전남 매년 4~6월 8000여건

대부분 노인 탑승 안전벨트 착용안해...사고나면 ‘대형’

영농철을 맞아 부족한 농촌인력을 실어 나르는 차량들이 도로 위 흉기가 되고 있다.

차량들이 새벽부터 시작되는 영농시간을 맞추기 위해 과속·곡예운전을 일삼고 있으며, 승차인원 초과 등도 빈번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경찰 등 사법당국이 영농철 교통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광주·전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21분께 영암에서 발일을 하고 귀가하던 노인을 태운 버스가 도로 아래로 추락해 8명이 숨지고 7명이 크게 다쳤다. 사망자들은 인근 나주 영산포 제일병원과 나주종합병원 등에 안치됐다.

사고가 난 25인승 버스에는 발일을 마치고 돌아가던 노인 14명과 운전자 등 총 15명이 타고 있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헬기를 이용해 부상자를 병원으로 옮기는 한편 장비를 동원해 구조작업을 진행했으나, 사망자수를 줄이지는 못했다.

경찰은 사고 버스의 과속 여부와 탑승자들의 안전벨트 착용 유무 등 정확한 사고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3일 새벽 4시 58분께 목포시 상동의 한 교차로에서 8명이 탄 승합차와 5명이 탄 승용차가 주행 중 충돌해 승합차 탑승자 1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승합차 탑승자들은 이날 무안으로 발일하러 가다가 사고를 당했다.

해마다 전남지역에선 영농철이면 인력 운송 차량의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광주시 광산구씨는 “새벽 일찍 내려가야 하는 탓에 과속은 기본이고, 탑승자 대부분이 노인들이라보니 답답하며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다”면서 “특히 본격 영농철이 되면 9인승 승합차에 13~14명이 타고 가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인력 운송차량 운전자들의 전문성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일부 운전자의 경우 어린이집 승합차 등을 이용해 새벽 일찍 인부들을 실어나른 뒤 어린이집 통학 업무를 보고 오후 늦게 또 다시 인부들을 귀가시키는 일을 반복하기도 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이 관계자는 “농촌 인력을 전문적으로 수송하는 운전자나 업체는 거의 없다”면서 “특히 농촌도로의 특성상 도로사정이 좋지 않은데다, 도적지에 대한 지리 등도

낮은 탓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농사현장으로 가는 길을 잘 모르는 상황에도 일 시작 시간을 맞추기 위해 과속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조금이라도 일을 더 시키기 위해 과속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영농철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경찰은 영농철의 특수성을 감안해 사실상 단속 등에 소극적이다.

영암지역의 한 농민은 “영농철엔 심지어 화물차 뒤쪽에 아무런 보호장치도 없이 인부들을 실어나르기도 한다”면서 “농번기인 만큼 경찰이나 행정기관에서도 영농 인력 이동에 대한선 별다른 통제를 하지 않는 듯 하다”고 말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1일 오후 5시 21분께 영암군 신북면 도로에서 25인승 미니버스가 코란도 승용차와 충돌한 뒤 옆으로 넘어져 8명이 숨졌다. 경찰이 사고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타까운 가정의 달

생활고·우울증 등 비관 광주서 극단적 선택 잇따라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생활고 등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잇따라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1일 광주경찰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후 5시 30분께 광주시 남구 모 공동 주택에서 택시운전자 A씨가 냄비 안에 번개탄 5개를 피워놓고 숨져 있는 것을 A씨의 친구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가 숨져있던 방안에는 번개탄 연기가 가득했으며, 외부침입 흔적 등은 없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숨진 A씨는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 어머니 사랑하고, 부모보다 먼저 간다는 게 죄송스럽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A씨의 형은 경찰에서 “미혼인 동생이 최근 당뇨병을 앓으면서 외롭다는

말을 자주 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진술했다.

같은 날 오후 4시 44분께 광주시 북구 모 아파트에서도 방안에 번개탄을 피워놓고 숨져있는 주부 B(48)씨가 B씨 아들(19)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원에게 발견됐다.

숨진 B씨의 아들은 “학교가 끝나고 집에 왔는데, 현관 출입문의 전자잠금장치가 작동하지 않고 출입문도 열리지 않아 119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가족들은 “B씨가 1년여 전부터 우울증과 불면증 등을 앓는 등 사는 게 많이 힘들어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두 사건 모두 범죄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내사 종결할 예정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15명 숨진 영흥도 낚시배 유족, 정부 등 상대 120억 소송

15명이 숨진 인천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 사고의 희생자 유가족이 정부와 급유선 선장 등을 상대로 총 120억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일 법원과 사고 희생자 유가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발생한 영흥도 낚시어선·급유선 충돌 사고 유가족 29명은 최근 정부 등을 상대로 총 120억2800여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원고에는 사고 당시 낚시어선 선장1호(0.77t)를 운항한 선장 오모(70·사망)씨 유가족을 제외한 희생자 14명의 아내·부모·자녀 등 상속인이 참여했다.

이들은 정부뿐 아니라 당시 선장1호와 충돌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 받고 있는 급유선 명진1호(336t급)의 선장 전모(39)씨와 갑판원 김모(47)씨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 명진1호와 선장1호 선주도 피고 명단에 포함됐다.

한편 동서 사이인 전씨와 김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6시 2분께 인천시 영흥도 진두항 낚시방 1.25km 해상에서 급유선을 운항하던 중 낚시어선 선장1호를 들이받아 낚시객 등 15명을 숨지게 하고 아내·부모·자녀 등 상속인이 참여했다.

이들은 정부뿐 아니라 당시 선장1호와 충돌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 받고 있는 급유선 명진1호(336t급)의 선장 전모(39)씨와 갑판원 김모(47)씨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 명진1호와 선장1호 선주도 피고 명단에 포함됐다.

한편 동서 사이인 전씨와 김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6시 2분께 인천시 영흥도 진두항 낚시방 1.25km 해상에서 급유선을 운항하던 중 낚시어선 선장1호를 들이받아 낚시객 등 15명을 숨지게 하고 아내·부모·자녀 등 상속인이 참여했다.

이들은 정부뿐 아니라 당시 선장1호와 충돌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 받고 있는 급유선 명진1호(336t급)의 선장 전모(39)씨와 갑판원 김모(47)씨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 명진1호와 선장1호 선주도 피고 명단에 포함됐다.

한편 동서 사이인 전씨와 김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6시 2분께 인천시 영흥도 진두항 낚시방 1.25km 해상에서 급유선을 운항하던 중 낚시어선 선장1호를 들이받아 낚시객 등 15명을 숨지게 하고 아내·부모·자녀 등 상속인이 참여했다.

이들은 정부뿐 아니라 당시 선장1호와 충돌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 받고 있는 급유선 명진1호(336t급)의 선장 전모(39)씨와 갑판원 김모(47)씨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 명진1호와 선장1호 선주도 피고 명단에 포함됐다.

한편 동서 사이인 전씨와 김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6시 2분께 인천시 영흥도 진두항 낚시방 1.25km 해상에서 급유선을 운항하던 중 낚시어선 선장1호를 들이받아 낚시객 등 15명을 숨지게 하고 아내·부모·자녀 등 상속인이 참여했다.

이들은 정부뿐 아니라 당시 선장1호와 충돌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 받고 있는 급유선 명진1호(336t급)의 선장 전모(39)씨와 갑판원 김모(47)씨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 명진1호와 선장1호 선주도 피고 명단에 포함됐다.

한편 동서 사이인 전씨와 김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6시 2분께 인천시 영흥도 진두항 낚시방 1.25km 해상에서 급유선을 운항하던 중 낚시어선 선장1호를 들이받아 낚시객 등 15명을 숨지게 하고 아내·부모·자녀 등 상속인이 참여했다.

이들은 정부뿐 아니라 당시 선장1호와 충돌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 받고 있는 급유선 명진1호(336t급)의 선장 전모(39)씨와 갑판원 김모(47)씨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 명진1호와 선장1호 선주도 피고 명단에 포함됐다.

한편 동서 사이인 전씨와 김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6시 2분께 인천시 영흥도 진두항 낚시방 1.25km 해상에서 급유선을 운항하던 중 낚시어선 선장1호를 들이받아 낚시객 등 15명을 숨지게 하고 아내·부모·자녀 등 상속인이 참여했다.

이들은 정부뿐 아니라 당시 선장1호와 충돌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 받고 있는 급유선 명진1호(336t급)의 선장 전모(39)씨와 갑판원 김모(47)씨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 명진1호와 선장1호 선주도 피고 명단에 포함됐다.

한편 동서 사이인 전씨와 김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6시 2분께 인천시 영흥도 진두항 낚시방 1.25km 해상에서 급유선을 운항하던 중 낚시어선 선장1호를 들이받아 낚시객 등 15명을 숨지게 하고 아내·부모·자녀 등 상속인이 참여했다.

이들은 정부뿐 아니라 당시 선장1호와 충돌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 받고 있는 급유선 명진1호(336t급)의 선장 전모(39)씨와 갑판원 김모(47)씨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 명진1호와 선장1호 선주도 피고 명단에 포함됐다.

한편 동서 사이인 전씨와 김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6시 2분께 인천시 영흥도 진두항 낚시방 1.25km 해상에서 급유선을 운항하던 중 낚시어선 선장1호를 들이받아 낚시객 등 15명을 숨지게 하고 아내·부모·자녀 등 상속인이 참여했다.

이들은 정부뿐 아니라 당시 선장1호와 충돌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 받고 있는 급유선 명진1호(336t급)의 선장 전모(39)씨와 갑판원 김모(47)씨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 명진1호와 선장1호 선주도 피고 명단에 포함됐다.

한편 동서 사이인 전씨와 김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6시 2분께 인천시 영흥도 진두항 낚시방 1.25km 해상에서 급유선을 운항하던 중 낚시어선 선장1호를 들이받아 낚시객 등 15명을 숨지게 하고 아내·부모·자녀 등 상속인이 참여했다.

이들은 정부뿐 아니라 당시 선장1호와 충돌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 받고 있는 급유선 명진1호(336t급)의 선장 전모(39)씨와 갑판원 김모(47)씨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 명진1호와 선장1호 선주도 피고 명단에 포함됐다.

한편 동서 사이인 전씨와 김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6시 2분께 인천시 영흥도 진두항 낚시방 1.25km 해상에서 급유선을 운항하던 중 낚시어선 선장1호를 들이받아 낚시객 등 15명을 숨지게 하고 아내·부모·자녀 등 상속인이 참여했다.

이들은 정부뿐 아니라 당시 선장1호와 충돌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 받고 있는 급유선 명진1호(336t급)의 선장 전모(39)씨와 갑판원 김모(47)씨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 명진1호와 선장1호 선주도 피고 명단에 포함됐다.

한편 동서 사이인 전씨와 김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6시 2분께 인천시 영흥도 진두항 낚시방 1.25km 해상에서 급유선을 운항하던 중 낚시어선 선장1호를 들이받아 낚시객 등 15명을 숨지게 하고 아내·부모·자녀 등 상속인이 참여했다.

이들은 정부뿐 아니라 당시 선장1호와 충돌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 받고 있는 급유선 명진1호(336t급)의 선장 전모(39)씨와 갑판원 김모(47)씨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 명진1호와 선장1호 선주도 피고 명단에 포함됐다.

한편 동서 사이인 전씨와 김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6시 2분께 인천시 영흥도 진두항 낚시방 1.25km 해상에서 급유선을 운항하던 중 낚시어선 선장1호를 들이받아 낚시객 등 15명을 숨지게 하고 아내·부모·자녀 등 상속인이 참여했다.

취객에 폭행 당한 여성 구급대원 한달만에 숨져

폭행 40대 기소외견 검찰 송치

전북 익산소방서는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윤모(47)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외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달 2일 오후 1시 20분께 익산 한 종합병원 앞에서 구급대원 A(여·51)씨의 머리를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져 있던 윤씨는 자신을 도우러 온 A씨에게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둘렀다. A씨는 구도와 경련 등 뇌출혈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이날 숨졌다.

윤씨는 “술을 많이 마셨다. 화끈이 구급대원을 때렸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윤씨에 대해 폭행치사 혐의 등을 염두에 두고 추가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구급대원이 윤씨 폭행으로 숨졌는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며 “추가 수사를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음=박기섭기자·전북취재본부장

‘물벼락 갑질’ 조현민 “사람 없는 쪽으로 유리컵 던졌다”

경찰 출두...특수폭행 부인

‘물벼락 갑질’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가 경찰 조사에서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유리컵을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전무의 이 같은 진술은 특수폭행 혐의를 벗어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서울 강서경찰서 관계자는 “(조 전 전무가) 당일 회의장에서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유리컵을 던진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다만 조 전 전무가 때

실 음료를 회의 참석자들에게 뿌렸는지 등에 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경찰은 답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에 조 전 전무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폭행 등 혐의를 조사했다.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업체 A사 팀장 B씨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며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참석자들을 향해 뿌린 혐의를 받는 다. /연합뉴스

영암군청 공무원 승진채 발견

1일 오전 9시 49분께 영암군 영암읍 한 아파트 거실에서 영암군청 소속 공무원 A(47)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A씨는 이날 출근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됐으며, 이를 이상하게 여긴 직

장 동료가 A씨의 집을 방문해 거실에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가 평소 고혈압 외에는 큰 질환이 없었던 점과 구토 흔적이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영암=전봉환기자 jbh@kwangju.co.kr

주차문제 시비 끝 격분...상대방 화물차 사이드미러 파손



○...운수업체에 종사하는 30대가 주차문제

로 다툰 상대방의 화물차 사이드미러 유리를 주먹으로 파손해 경찰서행.

○... 1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김모(38)씨는 지난 3월 29일 밤 10시께 광주시 광산구 신가동 미용실 앞 길가에 주차된 이모(43)씨 소유의 3.5t 마티프 화물차량의 운전석쪽 사이드미러를 주먹

으로 깨 2만6000원 상당의 피해를 끼친다는 것.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자신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 만들기 위해 이씨에게 전화를 했다가 다툰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는데, 김씨는 경찰에서 “차를 좀 빼달라고 전화를 했을 뿐인데 이씨가 욕설을 해 순간 화를 참지 못했다”며 서처를 호소.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 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7(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276평) 건물 : 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48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1,349㎡(408평) 건물 : 1,350.03㎡(408.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 : 61억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
- ★ [건물] 광주 동구 지산동 (제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191.03㎡(57.7평) 건물 : 728.97㎡(220.5평)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 : 27억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 : 7,662.4㎡(2,317.8평) 건물 : 6,864.61㎡(2076.5평) 지상 3층 매매가 95억 (보통급 4억2천, 월차임료2천6백만 외에 사우나·휘트니스 직영 등) 대로변, 아파트밀집지역, 복합사우나건물, 대출60억
- ★ [건물] 광주 동구 장동 (준주거지역) 토지 : 136.20㎡(41.2평) 건물 : 265.58㎡(80.3평) 지하층 지상3층 매매가 : 12억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 : 3,104.6㎡(939.1평) 건물 : 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 : 100억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호과 최상, 수익률최상 근린상가·요양병원(350메드이상) 적합-(상가와 요양병원 복합도 가능)

병원

- ★ [의료시설] 광주 북구 운암동 토지 : 2,769㎡(837.6평) 건물 : 3,793㎡(1147.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100억 병원, 학원, 사옥 적합 (중축가능)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 : 619.62㎡(187.4평) 건물 : 1,458.86㎡(441.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 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접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 : 514.40㎡(155.6평) 건물 : 2,143.08㎡(648.2평)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 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 광산구 신가동 토지 : 2,756㎡(833.6평) 건물 : 3,568.32㎡(1079.4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 56억 상담 후 결정
- ★ [의료시설] 광주 서구 농성동 토지 : 2,319㎡(701.4평) 건물 : 3,998.33㎡(1209.4평) 지상5층 매매가 : 65억 도로변, 광주 신세계백화점 인근

경매 추천 물건

- ★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전동(공장) 토지 : 7,339.4㎡(2220.2평) 건물 : 4,153.34㎡(1256.4평) 감정가 : 6,489,967,980원 최저가 : 4,542,978,000원
- ★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구로리(근린주택) 토지 : 4,200㎡(1270.5평) 건물 : 401.96㎡(121.6평) 감정가 : 473,683,800원 최저가 : 331,579,000원
- ★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공장) 건물 : 1149.74㎡(347.8평) 감정가 : 675,787,160원 최저가 : 675,787,160원
- ★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마산리(공장용지) 토지 : 15,590.5㎡(4716.1평) 감정가 : 1,839,679,000원 최저가 : 1,030,220,000원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 매매·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 010-4234-8640